

밀교연구서 잇달아 출간

'밀교학 입문' 등 10여종...한국밀교사상사도 나와

한국밀교가 오해받고 있다. 최근에 나온 한 책에서는 "밀교는 부처가 가장 경계한 남녀의 교합 속에 무슨 오묘한 진리가 있는 듯 가르치며 남녀의 교합을 종교의식으로 행한다"라며 마치 밀교의 한 분파인 탄트라불교를 전체 밀교인양 기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밀교학입문> <한국밀교의 밀교적 특색> 등 밀교관련 책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어 밀교를 바르게 전달하려는 전기를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밀교사상사연구> <밀교역사> <밀교입문>

등 이미 10여종이 선보이고 있다.

<밀교학입문>(B.뱃파짜리아 지음·장익 옮김, 불광출판부)은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의 고대문화와 결부시켜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특히 밀교가 지닌 인간정신의 수련과정과 심적 발전에 대한 가르침을 높이 평가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밀교의 밀교적 특색>(홍운식, 만다라)에서는 산중적 전통이 강한 한국밀교이지만, 그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앙의례에 있어서는 밀

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례와 가람구조 등에 나타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밀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밀교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책에서는 대체로 밀교의 발생배경과 그 특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국밀교사상사연구> <고려밀교사상사연구>의 저자 서운길교수(동국대·불교학)는 "바라본 교의 변상으로 불교교단이 위축되자, 불교의 교세회복을 위해 선두교사상과 민간신앙을 동시에 수용하여 불교적인 제

정립을 시도한 것이 밀교성립의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밀교는 제안을 받고 복을 기원하는 양재초복(禳災招福)의 특징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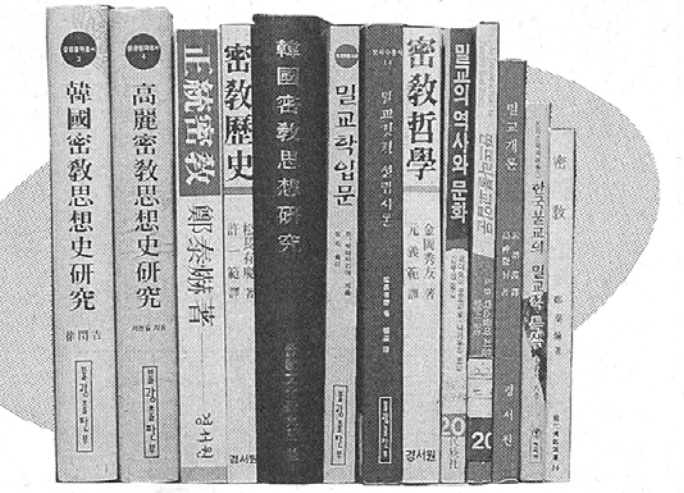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의 밀교는 성력파(性力派), 즉 상애를 수행방편으로 삼는 티벳 후기밀교(좌도밀교 또는 탄트라불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정태혁박사의 <밀교>(동국대역경원)에 따르면, 명량법사에 의해 전래된 밀교는 "당시 당나라에 유교되었던 체계화된 밀교(純密)였다"고 강조한다. 중기밀교라고도 불리는 순밀은 7세기경 인도에서 성립한 <대일경> <금강정경>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단계의 밀교이다.

밀교가 오해받는 원인은 상업주의에 영합한 출판물에 의해 마치 밀교가 선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데서 연유한다. 또 조선시대의 불교탄압도 한 원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신라 고려로 이어지며 명량 해통 등 뛰어난 밀교승의 활약이 있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승할 학승의 배출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후에도 불교학 연구에서 밀교에 대한 접근은 그 중요성만큼 활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운길교수는 "한국불교의 내면에는 밀교와 밀교적인 것들이 밀도높게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고려에서의 밀교는 한국밀교사상사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우리나라의 밀교는 좌도밀교라 불리는 성력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체계화된 중기밀교가 전래되어 신앙되고 있다.

대륙의 신라왕자



무불(無佛)시대 구화산을 세계적 지장성지로 삼은 지장보살 김교각스님의 구도일생을 소설로 엮은 <대륙의 신라왕자>(신용산 지음, 우리출판사)가 나온다. 작가 신용산씨는 <승고승전> <신승전> <구화산장건 화상사기>와 중국사인 이백

김교각 스님 구도 삼 소설로

화보집도 동시 출간 21일 출판기념회

의 <지장보살한> 등에 나타난 교각스님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교각스님의 탄생으로부터 불법을 구하기 위해 당나라로 건너가게 되는 과정, 중국에서의 교각의 구도행각, 구화산 정착과 화상사 창건, 입멸 후 지장보살의 현시과정을 재구성했다.

특히 교각스님이 신라 성덕왕의 만이름 김수창이라는 중국 화상사대사 사수엔(謝樹田)교수의 새로운 주장을 수용, 당시 신라왕실의 권력구조를 삼삼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우리출판사는 <대륙의 신라왕자>와 함께 화보집 <지장왕보살 김교각>도 함께 펴낸다. 출판기념회는 중국 구화산 화상사 방장 인덕스님을 초청, 21일 오후5시 송현문화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지	출판사
1	기도	석 타	효림
2	소설 등신불	서 용 산	문화수첩
3	티벳사자의 서	피드미라비	정신세계사
4	불타의 가르침	이 기 영	불교진흥원
5	반한암 선사	김 호 성	민족사
6	사찰의 벽화이야기	권 영 한	전원문화사
7	선의 세계	고 형 곤	운주사
8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	데시마루	불교시대사
9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경각
10	달마의 제자들	고 우 영	불지사

구입문의: (02)737-0695

명사추천

고려고승한시선

92년의 여름이었던 것 같다. 서울에 교보문고의 매장에서 읽고 싶은 몇 권 책을 빼어들었다. 그 가운데 <고려고승한시선(高麗高僧漢詩選)>이 들어 있었다. 이원섭시인의 편지로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에서 '현대불교' 신사 첫번째권으로 발행한 것이다.

전주까지 돌아오는 길에 거의 일독할 수 있었다. 읽었다는 보다는 빠져들었다는 표현이 적실한지 모른다. 차내에도 냉방이 되어 있었으나, 나는 이 책의 장정에 젖어들어서 상상한 산수간을 소요하는 느낌이 있었다.

나더니// 움직이지 하나도/ 있는 것 없네// 무(無)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라// 서리천 뒤 도리어/ 만개한 국화(靜也 千般現動也 一物無無是什 磨 霜後菊花乎)

이해는 태고(太古) 국사의 한 편이다. 편저자는 이계(異)의 평석에서 '색즉시공·공즉시색의 경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불교의 철리를 깊이 따질 수 없는 중생(衆生)의 한 사람으로도 '상후국화후(霜後菊化)'의 한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고, 그 미감에 빠질 수 있다면,



최승범 (『전북문학』 발행인)

주·평석 곁들여 게송 86편 수록 만다라화 같은 빛에 '가슴물결'

려진 이원섭(李元燮) 시인이 시인의 국역이라든 우선 안심하고 읽을 수 있다. 작품마다엔 주·평석(註·評釋)도 곁들여 있어, 한문이 모자란 사람으로도 이 책을 소화하는 데엔 어려움이 없다.

이 책은 꼭 첫장에서부터 눈을 주어야 할 것도 없다. 그저 펼쳐진 면의 작품이면 작품마다 만다라화와 같은 빛으로 가슴에 젖어들기 때문이다.

"죽음 문득 닥칠 때/ 누구 대신 시키라/ 일대 부처는/ 제가 갖는 법(無常忽到 孰能替 有償 來用自償)"

나용(懶翁) 왕사의 '경세(驚世)'에 있는 한 구다. 이 구의 앞뒤를 읽을 사람은 읽어도 좋고, 이 한 구만으로도 깊이 젖어들고 싶은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만다라화의 빛을 얻었다고 하겠다.

"고요할 땐/ 삼리만상 나타

그 삶은 충분히 이 세상살이에 있어 불제자의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말하여도 좋지 않을까.

끝으로 백운(白雲) 선사의 한 편을 들어본다.

"내 마음은 가을 하늘/ 달과 같아서/ 분별 없이 비치어/ 얽매임 없네/ 만물이 제 모습을 나타내는 중/ 밝은 그 빛/ 온통 드러날 보게(吾心似秋月 任運照無方 萬相影現中 交光顯皎成)"

가을이 아니어도 좋다. 하늘엔 밝은 달이 있어도 세상 들어가는 끝은 짙은 어둠일 뿐이다. 불현듯이 송강(松江)의 '내 마음 들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저'를 흉내내어 '내 마음 들어내어 저 달에 비추고저'라 읊조리고 싶다.

순바다 맑아 이 한 권의 책을 들출 때마다 나는 언제 나 피대(皮袋)와 청정(淸淨), 이 두 낱말을 곱잡게 된다.

불교의식집

현장체험 토대 한글의식문 정리

불교의식은 삼보에 대한 귀의의 거룩한 심성을 외화하는 것이며, 불교인이라는 정체성과 일체감을 구현하는 일대 장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불교의식은 대중과 결별하고 있다. 의식문이 대부분 한문 또는 다라나이기 때문에 의식에 참여하면서도 집중되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식집>은 "우리말로 된 의식문을 사용하면 집전자와 대중이 의사

인천·경기 전통사찰2

연혁·성보문화재등 상세히 수록

사찰은 불교의 참정신이 깃든 곳이며, 고승들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곳이다. 불교인은 물론 불교와 거리가 먼 사람에 게도 사찰은 몸과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점에서 사찰에 대한 문화적 신앙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통사찰총서 다섯번째 권인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은 인천광역시와 포함 경기도 북부지역 14개

부석사

무량수전등 가람배치 의미분석

삼국시대 이래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해온 사찰은 특히 전체적인 가람배치에 있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어 오늘날까지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부석사는 소백의 연봉들이 연출하는 장관을 앞당겨 펼쳐놓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의 171번으로 펴낸 <부석사>는 부석사의 연혁과 교리적 배경, 축조방법, 유적과 유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3명의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큰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업병도 불지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육신을 구한 일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큰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인간에 전해지는 인과회담 /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4,500원

49세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법공양문

72년 초판 발행 이후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잊혀진 책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하고 정직한 번역으로 새롭게 중보 발간하여 다시 선보였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깊은 맛이 우리나를 책으로 마음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안겨다 줄 것이다.

신국판 / 2,5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 법문 테이프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법문!

·큰스님 살아오신 이야기 (테이프 1·2)
·마음·마음·마음 (테이프 3)
·오론함을 이루는 공부 (테이프 4)
·철된 회향 (테이프 5)

5개 1세트 값 10,000원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감성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감성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아운비구의 <자경문> 감성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큰스님이 적절히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심심과 권력을 복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된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백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 동선호림 전화 : (02) 587-6612 · 3 팩스 : (02) 586-9078